70 Anniversary KYUNG HEE UNIVERSITY

제 1644호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media.khu.ac.kr

대학주보

중앙도서관에 나타난 로봇 바리스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 로봇 카페 'b:eat by dal.komm COFFEE(비트)'가 등장했다. 비트는 로봇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고 음료 제조·픽업 등을 전부 담당하는 무인 카페다. 남궁예은(지리학 2018)씨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과학기술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이은화 기자 ha1636@khu.ac.kr

공개된 '추천규정', 갈등 불씨 되나

〈총장후보추천규정〉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이 지난 5일 공개됐지만,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과 일부 조항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규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법인과 구성원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8일 열린 대학평의원회(대평의)에 출석한 이호창 서울부총장은 "법인으로부터 구성원 의견 수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 행정 조직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과정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를 발족했다"며 "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한 11개 구성원 단체에 규정 초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들이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내오면 오는 22일까지 있는 그대로 법인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각 구성원 단체들은 15일까지 관리위원회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평의 측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11개 구성원 단체에 대평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평의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 "구성원들이 규정을 요구할 땐 늑장을 부리더니, 자신들이 필요한 의견 수렴에는 짧은 기한을 두었다"며 절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관리위원회의 정당성 여부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한 대평의 위원은 "법인이 마련한 규정을 왜 학교와 상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왜 법인 측 권한 위임을 거절하지 않고, 학교가 대평의를 관리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부총장은 "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행정 지원이며 의견 전달을 위한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평의 측은 지난 11일 법인을 상대로 관련 입장을 밝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대학의 공식기관인 대평의는 규정과 관련, 법인 측으로부터 그 어떤 공식 문건도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학이 배포한 규정 초안에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이 담겨 있다"며 "법인은 즉각 대평의와 규정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평의가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규정 초안 제18조 제2항에는 '초빙위원회가 초빙한 인사에 대해 선 구성원 투표를 통해 추천된 3인의 후보와 별도로 총추위 의결에 따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항은 '총추위가 후보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지 못하거나 3인 미만의 후보 추천 시, 사립학교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해 구성원이 합의한 안과 달리, 법인의 의향에 의해서만 총장이 결정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대평의 측은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토론과 선거운동이 규정에서 제외된 것, 총추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12일에는 학교 측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불만을 제기했던 대평의 소속 구성원 단체는 모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실 김동준 과장은 "이른 시일 내 모든 구성원 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차기 간담회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출제 논의에 다시 갈등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구성원-법인 양측은 앞서 결의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평의 길재호 의장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법인으로부터 규정이 담긴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앞서 결의문을 통해 밝힌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3월이 지나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4월 중으로 예상됐던 총장 선출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치를 5월 17일까지도 총장이 선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다만 법인 측이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춰, 아직 논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국제캠 여자화장실 '몰카 없음'
애지원 사건 이후 합동점검 실시

김재윤 기자 kjy0808@khu.ac.kr

【국제】지난 겨울방학 국제캠퍼스(국제캠) 애지원 건물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대학원생이 검거됐다. 이후 지난 2월 25일부터 실시된 국제캠 주요 건물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에서 추가로 발견된 몰래카메라는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애지원은 국제캠 정문 건너편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과거 기숙사로 쓰였던 건물이다. 2007년 이후로는 우리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연구시설, 학군단 등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학교 학생 30여 명과 관계자들이 근로 장학생 및 연구자들 등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해 6월 대학본부가 교내 전체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지만 애지원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학부생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곳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당시 점검을 진행한 총학생회(총학)와 관리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합동 점검은 총학 주도로 주요 학부생 시설만을 살폈기 때문에 학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에 참여했던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는 "교내 건물 위주로 진행했던 점검이기 때문에 애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벌어진 연구동은 대학원 시설이니 대학원 행정실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국제경영대학원 등 교내 대학원 시설 역시 다수가 당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우선 점검 계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은 교내 경비업체와 관리팀, 교직원 등과 함께 앞으로 불시 혹은 학생 요청이 있을 경우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개강을 앞둔 지난달 25일부터 총학, 용인동부경찰서, 총무관리처가 국제캠 주요 건물 여자 화장실 합동점검을 시행했고, 점검 결과 발견된 몰래카메라는 없었다. 취약 지점으로 꼽히는 변기 뒤, 휴지통, 휴지걸이를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로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전경미 경장은 "화장실 문틈이 벌어져 바깥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고,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이 훼손되거나 창문의 위치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성평등위원회 권주은(중국어학 2017) 위원장은 "애지원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관리팀과 협조해 캠퍼스 내 몰래카메라를 점검해 사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총무관리처는 개별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총무관리처에 문의하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대여할 수 있다.

올해도 금지되는 본관놀이…"새내기야 미안해"

이서연 기자 windy5973@khu.ac.kr

【서울】지난해 교내 업무 방해로 금지됐던 '본관놀이'가 올해도 금지된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본관놀이 문화를 살리는 다른 행사를 학교와 논의 중이다.

지난해 4월 16일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는 본관 인근 취식 및 음주 행위, 이른바 '본관놀이'를 금지했다. 본관, 도서관, 교수회관 등 본관 인근 공간의 학업, 연구, 행정에 문제를 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본관놀이는 본관 앞에서 학생들이 음식, 술과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는 것의 별칭이다.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이진섭 과장은 "학생들이 단합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소음은 학교 업무에 문제를 준다"며 "올해도 본관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올해도 본관놀이가 금지된다는 소식에 김가영(사회학 2019) 씨는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하림(행정학 2016) 씨도 "동기들과 봄에 본관놀이를 하면서 즐거웠는데 금지되어서 아쉽다"며 "소음 문제 등은 학생들이 인지하고 규칙을 만들어 서로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총학과 학교는 과도한 음주나 고성방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문화제 기획을 검토 중이다.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전면 금지보다는 기간을 정해 본관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학생지원센터와 생각하고 있다"며 "음주, 배달 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줄이면서 본관놀이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림

사령

〈명 정기자〉

강래완(정치외교학 2018)	오진영(관광학 2018)
김재윤(원자력공학 2015)	이다빈(언론정보학 2018)
문하령(한국어학 2017)	이서연(사회학 2018)
박재령(국제학 2016)	이은화(경제학 2018)
배지현(정치외교학 2017)	홍언지(무역학 2017)

교수 칼럼

무의식을 흔드는 '낭만'에 귀 기울이기
전윤한(포스트모던음악학) 교수 ≫7면